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 (Advent)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7절)

2025 섬김위원 임명

오늘 1, 2,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I·II·III부 예배 시 2025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합니다.

2025년도 모든 섬김위원들은 2025년 1월 1일(수)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 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각 위원회·부서 및 자치회 대상 정기 회계감사 실시

감사 대상 기간 : 2024. 1. 1 - 12. 31(1년간) / 감사 기간 : 2025. 1. 14 - 31

교회는 재정위원회 산하였던 감사위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2025년부터 감사부를 신설하였습니다.(지난 12월 1일자 1711호 순례자 참조)

그리고 감사부(부장 : 차영도 장로)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부서 등을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부서) 11개(찬양, 교육, 새가족, 교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부, 멀티미디어부, 살롬대학, 순례자) ▲스테반회, 권사회 ▲자치회(8개의 선교회, 8개의 전도회)입니다.

2025년 감사부의 부원은 김형상 안수집사, 이용호 안수집사, 정윤희 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섬길 일꾼들

교회는 2025년을 섬길 일꾼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습니다.

제1 스테반회 회장은 김영희 안수집사, 부회장 옥종호 안수집사, 제2 스테반회 회장 김웅기 안수집사, 부회장 조서현 안수집사를 임명

하였으며 제1 권사회 회장 박민숙 권사, 부회장 김희정 권사, 제2 권사회 회장 박종숙 권사, 부회장 함정희 권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부 회장은 유승현 성도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김영희
안수집사

옥종호
안수집사

김웅기
안수집사

조서현
안수집사

박민숙
권사

김희정
권사

박종숙
권사

함정희
권사

유승현
성도

연말연시 일정 안내

- 12. 8(주일) 2025 섬김위원 임명
선교회 / 전도회 총회
- 12. 11(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오후 8시)
- 12. 14(토) 스테반회 총회
- 12. 15(주일) 권사회 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임마누엘)
- 12. 22(주일) 교구 총회
교육부서 성탄축하 행사
- 12. 24(화) 성탄전야예배(오후 8시)
- 12. 25(수) 성탄새벽예배(5시)(호산나)
성탄감사예배(11시)(임마누엘)
(수요1, 2부 예배는 성탄예배로 대체)
- 12월 중 찬양대 총회
- 12. 29(주) 향촌직 은퇴, 통독 시상
교회학교 졸업, 장한 어머니상
특별제직회(예·결산)
- 12. 31(화) 송년음악회(오후 10시 30분)
- 2025년
- 1. 1(수) 송구영신예배
(새벽기도회, 수요1, 2부 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 1. 5(주)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예·결산)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빛으로 오신 주님

요 1:1-14



손달익 위임목사

대림절(Advent)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의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냐'는 헬라어로 'ego eimi 즉, I am'이라는 뜻입니다.

- ①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48)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9:5)
- ③ 나는 양의 문이다.(10:7) ④ 나는 선한 목자다.(10:11)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⑦ 나는 참 포도나무다.(15:1)

본문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앙과 타락, 고통과 절망 등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하고 이로 인한 비명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권력의 부패, 도덕적 붕괴, 가난과 질병, 폭력과 테러, 전쟁과 난민 그리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급속한 확산과 환경파괴 등으로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져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야 하겠습니다.

1. 빛을 주시는 하나님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은 허공과 무질서와 짙은 흑암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두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용어를 매우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영적 무지 또는 극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를 말하고 반면 빛은 정반대의 상황,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것, 거룩한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8-9). 빛은 우리 삶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죄와 악한 습성,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두움은 이 말씀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악의 세력으로 세상 곳곳을 병들게 했고 오히려 빛의 세력을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했고 타협했고 어둠의 노예들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하시고 그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고 정복하시고 어둠의 노예로 전락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치적 어두움, 경제적 어두움, 지적 어두움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빛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빛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2.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요 1장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 모든 사람이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14, 18절) 핵심은 실제로 인간 역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10, 11절). 그가 어둠을 밝히는 영혼의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에 익숙한 인생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12절). 자기 집에 오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에 맞설 용기와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면세계가 혼란스럽지 않고 정돈되어 언제나 명쾌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빛으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으로 존재하셨기에 빛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결국은 빛의 삶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온 세상에 공개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공공성, 청렴성, 희생정신, 위협의 감수, 상호신뢰와 존경, 이런 것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요소일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마다 추악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고 정의를 거역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제 그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정도 사랑도 변하고 친구도 동역자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빛으로 다가 오십니다.

투명한 교회 재정 집행을 위하여



차영도 장로
(감사부 부장)

이번 2025년부터는 감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성도들의 귀한 헌금의 바른 사용을 위함입니다. 이에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부서 및 자치회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

니다.

1. 감사 대상

- 위원회(부서) 11개(찬양, 교육, 새가족, 교

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팀, 멀티미디어팀, 살롬대학, 순례자)

- 스테반회, 권사회
- 자치회(선교회 8, 전도회 8개 지회)

2. 감사 대상 기간 : 2024. 1. 1 - 12. 31(1년간)

3. 감사 기간 : 2025. 1. 14 - 31

(14일, 설 연휴 제외)

* 감사 결과는 2월 중 당회 보고 예정

4. 감사 중점 사항

- ① 부서별 예산집행 및 배정예산 관리 실태
- ② 부서별 회계책임자 지정, 회계장부 (전용 통장 포함) 비치 및 관리 실태
- ③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집행계획 (또는 행사 기본계획) 수립 여부
- ④ 배정예산 내 집행 여부와 예산집행 잔액

관리 및 반납 실태

- ⑤ 기타 예산집행액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5. 행정 및 협조사항

해당되시는 위원장(부서장, 자치회장)께서는 2024. 12. 31부로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마지막 줄에 회계와 함께 결재 후 2025. 1. 12(주일) 오후 4시까지 기한 엄수하여 사무국장에게 △ 회계장부(원본), △ 교회에서 예산 배정 받았을 시는 전용 통장(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장(부서장, 자치회장)께서는 제4대 위임목사 청빙이 교회 현안임을 감안, 조기에 감사업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에 나누는 희망과 기다림



김연화 권사
(디자인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뜻깊은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장식을 준비하면서 항상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매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장식을 준비하

였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작업을 하며 다른 해보다는 힘겨웠습니다. 이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며 봉사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함께해 줄 인원이 부족하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손길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돕는 손길들이 어찌나 소중한고 감사했던지요.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을 때 열배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 일은 두 사람이 할 일을 네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할 일을 여덟 사람이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 봉사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순례의 길에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넘쳐나는 서울교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천 년 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탄장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삶의 자리가 팍팍하게 느껴지는 성도님들!

잠깐 걸음을 멈추고 예쁜 트리를 보며 기쁨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12월 11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교회정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수요일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님의 개인전이 지난 12월 4일(수) 종로구 평창동 소재 가나아트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국내에서 6년 만에 여는 개인전으로, <올해의 작가 2001- 전광영>,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병행 전시인 <재장초된 시간들(Times Reimaged)>에 출품되었던 작품 등 초기 추상화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집합(Aggregation)>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손달익 위임목사님은 시

편 19편 1-4절 말씀을 통해 "모든 예술 작품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전광영 집사님의 작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관람객이 전 집사님의 작품 앞에서 환호했던 것처럼 이번 전시회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시기를 기원하며 관객 모두에게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세계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귀

한 작품을 통해 전세계에 아름다움을 선물하시는 전광영 집사님이 앞으로도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예배에는 오정수 원로장로님 내외분과 사라전도회 임원, 3교구 식구 등 삼십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2월 2일(주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리 : 허숙 권사



교구 기업 소식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광환 권사(2교구)가 대표로 있는 <UTOUR 50+>에서 2025년 3월 25일(화)부터 4월 4일(금)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 주요 종교개혁지(독일, 체코, 스위스, 프랑스)로 성지순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로 인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온 복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 식었던 신앙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지순례를 계획했다고 하는 전광환 권사는 이번 성지 탐방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서울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탐방은 서울교회 부목사로 섬기셨던 정수길 목사님(바이로이트한인교회 시무)의 안내로 진행됩니다. 이 성지순례는 교회 공식행사는 아니지만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여행 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전광환 권사 (010-6275-6220)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정>

3. 25	프랑크푸르트 보름스 대성당, 루터공원
3. 26	하이델베르크 고성, 카를테오도르 다리
3. 27	바르트부르크 성, 바호하우스, 비텐베르크성교회, 시립교회, 루터하우스
3. 28	드레스덴 - 프라우엔키르헨, 오페라하우스 프라하 - 카를교
3. 29	프라하성, 안 후스 광장, 베들레헨 교회, 바츨라프 광장
3. 30	바이로이트한인교회 주일예배
3. 31	취리히 - 그로스뮌스터, 바서키르헨, 프라우엔뮌스터 샬로니 - 몽블랑
4. 1	제네바 - 종교개혁기념 조형물, 생 피에르교회
4. 2	파리 - 루브르박물관, 샹젤리제, 개선문, 위그노 유적지
4. 3	에펠탑, 칼뱅생가
4. 4	귀국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24 사명자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성경읽기 우수다락방인 1교구 1다락방과 3교구 8다락방에게 시상하였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32강 : 세례(1) 통과의례가 무엇일까요?

판 헤네프(Van Genneep)의 『통과의례』를 번역한 김성민은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중요한 통과의례에는 임신과 출산, 입문식, 결혼식, 장례식, 이방인을 맞이하는 것 등 여섯 가지가 있으며, 그런 때에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예식을 행하면서 의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례들의 절차와 예식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통과의례에는 겉으로 서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리(separation), 전환

(marge), 가입(agregation) 등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네프는 통과의례에는 사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 심리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이 학설은 사회학, 종교인류학, 민속학 연구는 물론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핵심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군입대’가 일종의 통과의례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되며, 군번과 주

특기를 가지고 소속부대에 ‘가입’되어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장병은 그 이전과 다른 사회적 지위 곧 ‘예비역’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변하면서 청소년단계에서 성인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리-전환-가입’의 도식은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과의례로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세계관 및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교회공동체에 **가입**되는 의식입니다.

69문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세례는 문자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영혼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받는

본을 보여주신 것(막 1:9-11), 둘째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요 4:1-4), 셋째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마 28:19-20)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물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심으로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인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의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가 씻겨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지의 여부 곧 사죄의 은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물세례를 통하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 없어질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70문 :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 서론에서 언급했던 ‘분리’의 관점에서 보면 - 옛사람과 분리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져서 옛사람과 분리된 새사람이 되는 것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분리된 새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서 피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분리’가 일어나서 새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1문 :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제71문답은 ‘세례’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이 어느 성경구절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히 9:22)”는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식 또는 전제가 있었기에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씻으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할 때 죄씻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와 관련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이 말씀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71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